

군대 귀신시대 (마가복음 5:1-20)

하나님이 원죄의 저주를 당한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이것이 답이다. 그것이 그리스도고 그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믿어져서 100% 답이 된 경우는 많지 않다. 체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복음을 누리다 보면 100%에 가까이 간다는 것이다. 이 복음이 100%짜리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성경은 복음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그리스도의 삼직이다. 이것은 이 언약을 더 구체적이고 현장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저주와 운명 재앙을 다 물리친 것이다. 그것을 해결하셨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완전 제거를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운명 저주 재앙같은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운명, 저주라고 이야기 하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가까이 있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가 더 이상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많은가?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아닌데, 그것은 우리의 누림이 약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저주에서 건졌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는 문제가 없다. 사단이 우리의 영혼은 절대 손대지 못한다. 한번 받은 구원을 사단은 손대지 못한다. 예전에는 안 그랬다. 우리의 영혼을 맘대로 했다. 그리스도 없이 죽으면 어찌 되는가? 사단에게 끌려가는 것이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짓고 죽어도 절대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데려갈 수 없다. 영혼 문제는 완전 해결되고 돌아볼 필요 없고, 예수님이 다시 죽을 필요 없으며 완전 끝났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문제는 왜 완전 끝이 나지 않는가? 누림이 약해서 그런 것이다. 전쟁이 약해서 그런 것이다. 깨달음이 약해서 그렇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다. 이 전쟁이 깊이 되어지고 승리해야 된다. 실상은 우리가 문제에 쳐도 문제가 문제 되지 않는다. 사실은 쳐도 괜찮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히 해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괴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라서 그렇다. 그래서 괴롭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누리는 사람은 절대 문제가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어떤 문제라도 절대로 이길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로 문제에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답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이러면 문제가 와도 상관 없고 문제가 가도 상관 없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은 당연히 모든 문제가 역전된다. 아니면 다음 역전을 위한 과정이 된다.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이다.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느냐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누리는 사람은 사단이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을 절대 어떻게 못하고 아무 힘이 없다. 왜 사단이 우리에게 힘이 있고 영향을 주는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렇다. 50대 50이면 양다리를 걸치니까 계속 갈등이고 문제이다. 그러나 완전히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사단이 절대 문제를 줄수 없다. 문제 와도 괜찮고 반드시 역전되어 진다. 성경에 승리한 사람들을 보라.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이 시간표가 되면 정복하게 된다. 50대 50이면 늘 갈등한다. 차츰차츰 100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문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완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사단은 아무일도 못한다. 이것이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이다.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는 어떨까? 하나님을 만나는 완전한 길이다.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완성되어 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완성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24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 누림이 완전해야 한다. 믿음이 있으면 24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근본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완성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누림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

큼 언제나 가능하다. 답은 그리스도이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이다.

창세기 3장 문제를 당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이다.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그렇구나라고 느껴져야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100프로 누리는 증인되기 바란다. 그러면 승리한다. 계속 승리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정복해 가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영웅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안에 들어온 것이 굉장히 감사하다. 살다보면 이것 외에 다른 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반드시 역전되고 그것은 다음 응답을 위한 발판이 될 뿐이다. 예전에는 우리는 문제에 죽기살기로 대들었다. 그것은 착각이다. 답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답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권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우리를 정복하는 일은 원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답을 몰라서 당하는 것이다. 다른건 아무것도 없다. 정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듣는 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 그것이 왜 답이 안되는가? 그것을 누리는 영적인 것이 없는 것이다. 돈이나 힘이 필요하게 아니다. 영적인 무엇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 현금해도 눈 하나 깜빡 안하신다. 그런데 어떤 거지같은 사람이 마음을 통하는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는 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특별히 영적 문제, 귀신 시대에 답을 가진자는 참 복음을 가진 우리 뿐이다.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바란다.

1. 답은 말씀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영적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의사는 영적 문제 때문에 일어난 어떤 결과의 병을 고칠수 있는 약은 없다. 예를 들면 너무 마음이 불안해 머리가 아프면 두통에 관한 약은 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약이 있는가? 어디를 수술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나? 안된다. 불안할때는 약먹으면 평안해진다는 사람 있을수 있다. 그런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나? 처음에 몇 번 나올거라는 기대 때문에 효과가 느껴지는 것이다. 진짜 귀신들리면 그걸 누가 고칠것인가? 인간은 아무도 손 못 댈다. 그래서 지금은 군대귀신시대인 것이다. 눈을 잘 뜨고 봐야 한다. 귀신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발전해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생명은 못 만든다. 바깥으로는 사람보다는 더 사람같은 것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 기계지 사람이 아니다. 인간은 아무리 해도 영혼은 못 만든다. 그 영혼에 생기를 불어 넣어 생령이 되게 하는 것, 인간이 할수 있는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인간은 불가능하다. 있는 것을 변화는 시킬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절대로 사단을 못 이긴다. 무슨 방법으로 못 이긴다. 전 세계에 있는 원자탄을 다 쏟아부어서 지구가 망해도 사단은 꿈쩍 안한다. 사단의 문제는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군대귀신 시대에 답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말은 말씀이 답이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셨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당연히 은혜와 진리가 총명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8절에 보면 그 군대 귀신에게 말했다. 너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이 떨어졌기에 귀신은 난리가 난 것이다.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께 무릎꿇고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빈 것이다.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예수님 말씀 떨어지면 귀신은 절대 복종해야 한다. 죽으라 하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것이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이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때도 있었다. 요한복음 2장 8절에 물을 갖다주라고 하니 그때 포도주 되었다. 그 전에는 아무리 갖다 줘도 안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포도주 된 것이다. 이것은 아주 창조

적인 것이다. 포도주와 물은 완전히 화학적으로 다른데 이 일이 생긴 것이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지금도 동일하다. 역사하신다.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각인하면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영적 문제 치유는 말씀으로 한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되지 약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말씀대로 하면 기도가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문제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날 이 말씀이 들어가면 무조건 낫는 것이다. 어느날 사역자가 하는 말씀이 이해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 낫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마음의 병이고 정신의 병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제일 쉬운 것이 그런 병이다. 말씀만 전하면 되기 때문이다. 말씀만 바르게 전달하고 있으면 무조건 때가 오는 것이다. 물론 내가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 시간표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문제가 있는 분에게 말씀을 쓰게 하거나 녹취하게 하는 것이다. 부산의 치유센터에서 하는 것이 세가지인데, 시간 날때마다 말씀 듣고, 쓰고 있다. 그리고 시간되면 호호하고, 혼자서 기도한다. 물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겠지만 그것으로 끝이다. 그것으로 모든 병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성경적이다. 예수님에게 왔던 모든 병자는 나았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스스로는 기도도 할수 없고 예배도 드릴수 없으니 써보라는 것이다. 스스로 예배드리고 기도할수 있으면 다 된 것이다. 그래서 언약기도 쓰면서 그리스도 한번 더 고백해보라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의 요약본도 있다. 써보라는 것이다. 성경에도 특별히 치유와 관련된 말씀이 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종류인데 써보라는 것이다. 본부에서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도 써보라는 것이다. 말씀을 각인하는 작업을 계속하면 언젠가 뿌리 내리게 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생치유가 여기서 일어나게 된다. 인생을 고쳐버리기 때문에 사업 치유도 여기서 일어난다. 가정 치유도 여기에 있다. 내 미래 치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사명

본문 19-20절을 보면 군대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그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된다. 불안한것이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까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고 답을 준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오히려 쇠고랑 채우고 묶었지 도움 되는 것 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비참했을 것이다. 그 전에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정상적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물론 동네 사람들도 어쩔수 없었지만 그들이 와서 쇠사슬로 묶은 것이다. 비참했을 것이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괴로운 일이다. 소리를 지르지 않고는 견딜수 없으니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그리고 귀신이 시키니까 어쩔수 없는 것이다. 완전히 잡혀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던 그가 자기와 아무 상관 없는 예수님을 만나 모든 문제가 순간적으로 해결되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함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왜냐면 너 가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라고 하셨다. 사명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재발 안할 것을 아셨기에 그냥 가라고 한 것이다. 그랬더니 그가 가서 가족 뿐 아니라 데가볼리, 그 지역전체에 전한 것이다.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치유받았다고 하니 듣는 사람마다 전부 놀랜 것이다. 귀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인생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을 것이다. 거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구실 못하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역전이 되어 버린 것이다. 온 가족이 당연히 예수 믿었을 것이다.

첫째는 우리가 먼저 구원받는 것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살려준 것이다. 세상에는 답이 없다. 이 사람이 귀신들렸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한 일을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했다. 자기들은 손도 대지 못하고 방치 했는데 고쳐주신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했다. 감사하기는커녕. 질문이라도 해야되는데 떠나달라는 것이다. 이 사람이 완전히 나아버리니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겁을 냈다는 것이다. 왜 겁을

내는가? 2천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순간적으로 돌아서 물에 빠져 죽은 것이다. 하도 그 동네 사람들이 악해서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도 반응은 떠나주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세상은 이 시대 영적 문제에 대해 답도 없고 관심도 없다. 역사가 일어나도 관심 없다. 오히려 두려워한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시대를 두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참 감사한 일이다.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셨다. 렘넌트들의 나이 대에는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수 있다. 어른의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닐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 안에 있으면 스스로 해결할수 있다. 예전에 어려운 것이 완전히 역전되어 사람살리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나도 이랬다면서 걱정하지 말라면서, 이것이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증인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미국, 남미, 다민족이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기도제목인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한다. 237, 치유, 서밋 해야 한다. 가슴에 들어왔는가? 부활메세지는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이다. 제자를 세우라 했고 능력출테니 치유하라라고 했다. 어린양을 키우라. 렘넌트 운동을 하라는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했다. 다른 증인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237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6:33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부활 메시지이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부활메세지의 내용이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해야 한다. 사명 놓치면 안된다. 우리는 구원 받았다. 문제 있어도 상관 없다. 사명 감당해야 한다. 문제 있어도 괜찮다. 지나갈건데, 불신자들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린 언약잡으면 역전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다음 문제의 발판되는 것이다. 우린 미국 살려야 하고 미국 교회 살려야 한다. 렘넌트들은 미국 렘넌트 운동 해야 한다. 이것이 되어야 미국에 미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안되면 미국에 미래 없는 것이다. 미국도 망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너무나 선명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들 중에 언약이 있을 때에는 큰 나라에서 조공을 보내왔다. 그런데 언약 놓쳤을 때 항상 전쟁이 있었다. 기근과 재앙이 있었다. 항상 그랬다. 그러면 메시지가 너무나 선명하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언약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있다가 복음만 회복하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는 것이다. 갔다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계속 도와주고 살리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의 반복이었다.

미국이 회복되려면 일단 미국교회가 복음이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으로 우리와 가슴이 통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슴이 통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군대귀신시대를 두고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미국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 살려야 한다. 누가 미국에 신경쓸것인가?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살려야 한다. 누구에게 가서 우리 아이를 살리라 할 것인가? 우리 안에서 제자 키우고,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이 복음을 미국에 전해서 미국을 살려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국에서는 메시지만 받으면 된다. 그리고 이 사역은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 잡고 해야 한다. 10가지 비밀중에 1번이 독립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너 혼자 할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가? 뭐가 어려운가? 사실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국 살리고 남미는 끝까지 가야 한다. 렘넌트 운동이 정말 일어나야 하고 다민족 운동 일어나야 한다. 렘넌트 다민족을 귀하게 봐야 한다. 우리는 보통 교회보다 렘넌트 다민족을 귀하게 여기는 언약 안에 있다. 다시 한번 사명이 회복되어 지는 축복의 한주간 되기 바란다. 그리스도 안에는 문제 없다. 있어도 필요 없다. 언약을 누리기 바란다. 그것으로 승리할 것이다. 되든 안되든 하고 있으면 100프로에 가까이 가 있게 될 것이다. 자녀들에게는 시킬 것 단 하나 뿐이다. 이 언약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끝이다. 공부는 할만큼 하면 된다. 언약 누리는데 지장되면 공부도 쉬어야 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시대에 참 하나님의 사람, 100%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